

精神症狀와 聯關된 痰飲에 關한 文獻的 考察

나경원 · 이상룡*

I. 緒論

痰은 體內的 非生理的體液의 總稱¹⁾으로 疾病의 原因이 될 뿐만아니라 疾病의 結果로 發生되기도 한다²⁾.

狹義의 痰飲은 呼吸氣道에서 咳出된 一種의 分泌物³⁾을 가리키지만 廣義의 痰飲은 體內에 流滯된 水濕으로 말미암아 凝聚되어진 痰液水邪⁴⁾ 및, 實質의인 形態는 볼 수 없으나 頭目眩暈, 惡心嘔吐, 心悸氣短, 神昏, 癲狂 등과 같은 症狀만을 나타내는 無形의 痰飲을 包括한다⁴⁾.

李⁵⁾는 “百病皆生於痰” 이라 했고 朱⁶⁾는 “百病兼痰” 이라고 하였듯이 痰飲은 다양한 疾病症狀에서 주요한 病因으로 여겨지고 있다.

精神活動의 方面에도 《格治餘論》에 “…… 痰客中焦 …… 不得運用以致十二官各失其職 視聽言動 皆有虛妄” 이라하여 痰으로 인한 精神障碍를 概括的으로 說明하고 있다¹⁾. 嚴⁷⁾은 “皆由驚動臟氣不平 鬱而生涎 閉塞諸經” 이라하여 心因으로 臟氣가 편안치 못하여 鬱하면 痰이 生한다 하였고, 朱⁶⁾는 “五志之火 因七情而氣鬱而成痰 故爲癲狂妄之證” 이라하여 七情의 過傷에서 생기는 鬱火가 痰을 생기게 하는 原因이 된다고 하였고, 李⁵⁾도 “驚恐優怒卽火盛 神不守舍 舍空痰塞” 이라하여 情緒의 不安靜으로 痰이 生하게 된다고 하였다. 張⁸⁾은 “癲病多因痰氣” 라했고, 陳⁹⁾은 “呆病實亦胸腹之中無非痰氣” 라하여 痰이 精神疾患의 중요한 病因임을 말하였다.

이처럼 精神作用과 痰飲과는 密接한 聯

關性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痰飲과 身體疾患에 對한 研究는 張 등^{10,11,12,13)}에 의하여 進行되고 있으나, 痰飲과 精神症狀의 相互關係에 關한 研究報告는 接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著者는 精神症狀과 關聯되어 痰飲이 어떻게 作用하는지 알아보고자 痰飲의 定義, 發生原因 및 機轉과 精神症狀의 痰因說등을 中心으로 諸文獻을 比較 檢討한 結果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痰飲의 定義 發生機轉

1) 內經 素問 至眞要大論

太陰在泉 濕淫所勝 民病食積心痛 太陰之勝 獨勝則 濕氣內鬱 飲發於中 太陰之復 濕變內勝 飲發於中

2) 巢氏諸病源候論

由氣脈閉塞 津液不通 水飲氣 停在胸部 結而成痰

3) 東醫寶鑑

痰者 津液因熱而成 熱則 津液薰蒸而稠濁 故名爲痰也

古方爲之飲 今人謂之痰 其實一也

4) 濟生方

調攝失宜 氣道閉塞 水飲停於胸部結而成痰

5) 和劑局方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神經精神科學教室

飲酒冒寒 惑 飲水過多所致

6) 劉河間三六書

積飲 留飲積蓄而不散也

水得燥則消散 得濕則不消而為積飲也 土濕主否故也

酒性大熱而因飲冷 冷與熱 凝於胸中 不散而成濕 故痰作矣

內傷脾胃 外感風邪 寒化熱生痰

7) 儒門事親

留飲止證也 不過蓄水而已

其來有五有 憤鬱而得之者

有因乏而得之者

有思慮而得之者

有痛飲而得之者

有熱時傷冷而得之者 陰證雖多 無出於此 夫憤鬱而不得伸則 肝氣乘脾 脾氣不化 故為留飲

肝主慮不慮而不快則 陰氣不行 脾主思 不思而不已則 脾結 故亦為留飲

人因勞役 原來乘因飲水 脾胃力衰 因而嗜臥不能 布散於 脈亦為留飲

因飲酒過多 脾胃已滿 又復增之 脬經 不及滲泄 久久如斯 亦為留飲

降暑津液焦固 喜飲寒水 本欲止渴 勝快過多 逸而不動 亦為留飲 積水則生濕 停酒則生燥 久則成痰

8) 丹溪心法

自熱成積 自積成痰

脾胃之衰 水穀飲食之精 不能運化而由於心下 百病多有兼痰者 世所不知 人身中有結核 不痛不紅不作膿痰注也

9) 景岳全書

血氣若化失其正則 臟腑病 津液則而血氣 即 成痰涎 痰涎之作 必由於元氣之病

痰症一證 在內經止有 積飲之說 本無痰證之名 此 內經之不重痰症 概可知矣 及考

痰之名 雖起自仲景 後世相搏 無論是痰非痰 此所以痰必因病生 非病之因痰而致也 故 內經之不言痰者 正以痰非病之本 乃病之標耳

10) 醫學正傳

諸氣憤鬱 皆屬肺金 肺氣鬱則成熱 熱性則生痰 自鬱成積 自積成痰

11) 醫學入門

痰乃津液所成 隨氣升降 氣血不調 飲水多酒 停蓄不散 外邪生冷七情相搏

12) 濟生方

惟脾土虛濕 清者難升 濁者難降 留中滯膈 於而成痰

13) 金匱要略中篇

痰因於 飲因於濕 痰生於脾 濕勝即精 微不運從而 凝結

14) 徐靈胎醫書

痰為有形之火 火即無形之痰 痰之未病 即身中真陰也 火之未病 即身中真陽也 痰得火而愈沸 火得痰而益熾

15) 韓方醫學大辭典

疾病的病理產物或 致病因素 不論因病生痰 或 因痰致痛 均與肺脾二臟有關 有“脾為貯痰之源 肺為貯痰之器

① 指呼吸道分泌百病理產物

②指病因病症

16) 中醫學基礎

正義：痰飲이란 體內的 過多한 水液이 어느 한부분에 停聚됨으로써 發生되는 疾患

狹義：咯出的痰飲 飲中의 一類型

廣義：體內却經絡 臟腑에서 出現하는 病狀, 여러飲의 總稱

發生：肺脾胃腎의 機能失常으로 津液不能化生 輪布排泄 或 津液被熱煎熬而成

思慮過度 損其心包 以致神舍不清 過事多忘 乃思慮過度 病在心脾

17) 東醫病理學

痰飲에 대한 現代醫學的 理解

①現代醫學의 疾病 ----- 痰飲病 腦血管疾患(昏迷, 失語, 意識障礙)

----- 痰迷心竅 半身단환 ----- 痰阻經絡 精神分裂病狂躁不安(理智喪失)

----- 熱痰攝心 血管神經性 頭痛 或 內耳性眩暈

----- 痰厥上逆 神經官能症의 咽喉阻塞感

----- 痰氣內結 頸淋巴結核 ----- 痰凝成核

② 咳嗽時에 排出되는 痰液 즉 喀痰 (sputum)에서 顯微鏡으로 觀察하여 發見 할 수 있는 것

粘液絲와 粘液球 血球(白血球 혹 白膿球), 病細胞 彈力纖維, 肺組織 小片과 纖維性凝固物, 結晶(脂肪, 痰脂核, 血液菱形, 奇酸石灰, charcol외 結晶) 포蟲, 폐이구蟲, 細菌(結核한 菌등)

精神症狀 中 痰飲과 關聯된 諸家說

1) 證治要訣

癲狂由七情所鬱水生痰 迷塞心竅不省人事 目瞪不瞬 妄言叫罵 甚即逾垣上屋 裸體打人 當治痰寧心

心風者 精神恍惚 喜怒不常 無語時 或錯亂 有癲之意 不如癲之甚 亦痰氣所爲也

2) 朱丹溪心法

癲屬陰狂屬陽 癲多喜而狂多怒 大率多因痰結於心胸間 治當鎮心神皆痰結 亦有中邪而成此痰者即 以治邪法治之 蓋爲世所謂重飲者癲 重陽者狂是也 大概是熱

健忘人精神短少者多 亦有痰者 此症皆由

3) 醫學正傳

大抵 狂爲痰火實盛 癲爲心血不足 多爲求望高猿 不得之者有之 狂宜乎下 癲即宜乎 安神養血 兼降痰火

內經門巨陽之厥 即腫首頭重 足不能行 發爲眩伏 是蓄陽氣逆亂 故令人卒然暴伏而不知人 氣復即生 此即癇之類也 癇病獨存乎 痰因火動所作也

4) 醫學入門

驚恐憂怒即 火盛神不守舍 舍空痰塞 五癇病狀偶類之耳 其實痰火與驚三者而已 肥人多痰 動即有聲 沫出 瘦人火盛

狂者 凶狂也 輕即自高自是 好歌好舞 甚即葉衣而走 踰垣 上屋又甚即 披頭 大叫不避水火 且好殺人 此心火獨盛 陽氣有餘神不守舍 痰火壅盛使然

5) 石室秘錄

癲狂之症 亦累歲經年而未愈 乃痰入於心竅之間而不能出

癲狂之生也 多生於脾胃之虛寒 脾胃虛寒 所養水穀不變精而 變痰 痰凝胸膈之間 不能化流於心而癲症生矣

呆病實亦胸腹之中無非痰氣 故治呆無氣法 治痰即治呆也

6) 千金方

痰熱相感而動風 風心相亂即悶督 故謂之風眩 大人曰癲

小兒即癇 其實一也

7) 葉桂 臨證指南

狂有大驚大怒 病在肝膽胃經, 三陽并而上昇, 故火識即痰湧, 心竅爲之閉塞 癲由積擾積鬱, 痰在心脾包絡, 三陰蔽而不宜 氣鬱即痰迷 神志爲之混淆

癲病或由驚恐 或由飲食不節 或由母腹中受驚 而致臟氣不平經久失調 一觸積痰 厥氣內風 卒焉暴逆 莫能禁止 待其氣反然後已

情懷悒鬱 五志熱症 痰聚姐氣 腕中脘隘 不舍 脹及背部 上焦清陽欲結

8) 證治準繩

人之所主者心 心之所養者血 心血一虛, 神氣失守, 神去即舍空 舍空即鬱而停痰, 痰居心位, 此驚悸之所以必端也 有停飲水氣乘心者, 即胸中鹿鹿有聲, 虛氣流動

9) 辯證奇聞

呆病治之法 皆氣鬱痰 水氣即 健脾胃通而其氣即 心地光明而叫景盡散矣10) 古今醫鑑

或人七情之氣鬱結 或為六淫之邪所干 或人受大驚恐 神氣不守 或自幼受驚感觸而成 皆是痰迷心竅 如痴如愚.

11) 醫學綱目

癲癩即頭眩也 痰在膈間 即頭微不伏 痰溢膈上 即眩甚伏倒於地而不知人 名之曰癲癩

癲癩煮痰邪膈上也

12) 醫學準繩六要

然腎間動氣 乃生氣之源 腎傷即志不足 故神躁優火逆上 攻動其痰而厥也

13) 醫學基礎理論問答

痰迷心竅, 多因七情所傷, 如抑鬱, 暴怒等, 或感水濕濁邪氣, 姐塞氣機, 氣結痰凝, 姐塞心竅而致, 常見于腦血管意外引起的昏迷.

痰火擾心, 多因于氣鬱化火 癲熬津液成痰, 痰火犯優心神, 或多感熱病, 邪熱挾痰, 內陷心包而致, 常見于憶病, 精神分裂症, 癲癩.

心血瘀阻常氣 發於心氣或 心陽虧虛之後 因陽氣虧虛, 無力溫運血脈, 以致血行不利, 進而於血姐滯心脈, 往往由於怒倦 感寒 喜怒不節, 情志內傷, 或痰濁凝聚而誘發 惑加重, 心血瘀阻常見于心絞痛, 心臟梗塞 等.

14) 東醫病理學

痰火優沁은 대개 情志不遂하여 氣機가鬱結化火하고 煉津生痰하여 痰火가 識盛하거나 外感熱病時에 邪熱이 痰을끼고 心包로 內陷한 所致이다 또 痰迷心竅는 抑鬱 暴怒등의 七情傷이나 濕濁邪氣에 感하여 氣機가 沮塞되고 氣結痰凝하므로 心竅가 閉塞된 所致이다.

III. 考察

痰飲이란 體內的 生理的 體液인 津液의 相對的인 意味로 水分代謝障導로 體液이 變調되어 發生하는 非生理的 體液의 總稱¹⁾, 또는 疾病의 素因으로 作用하는 病理的 產物을 包括的으로 指稱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內經 素問 至真要大論》¹⁴⁾에는 “太陰之勝 獨勝即濕氣內鬱”이라하여 運氣上 濕氣가 流注하는 自體가 原因이 되어 水飲이 發한다고 하였으며, 張¹⁵⁾의 《金匱要略》에서 飲을 病邪의 所在에 따라 痰飲, 懸飲, 溢飲, 支飲으로 區分하는 가운데 痰이란 名稱이 처음으로 나오나, 飲을 形容하는 意味이지 現代의 痰을 指稱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¹⁶⁾.

張¹⁵⁾以後 巢¹⁶⁾가 《巢氏諸病源候論》에서 痰을 體內 飲水의 代謝不調로 發生하는 物質로 보았으며, 張¹⁷⁾은 이를 發展시켜 飲病에는 憤鬱, 困之, 思慮, 痛飲, 熱時傷冷의 다섯가지 原因이 있고 痰病에는 風, 熱, 濕, 酒, 飲痰의 五種이 있다고 하였다. 許¹⁸⁾는 過去의 痰과 飲이 實은 하나로 같다고 하여 痰과 飲을 區分없이 痰飲

으로 通用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또 王 등^{4,19)}은 痰과 飲은 모두 臟腑의 病理變化에 의한 産物인데 보거나 만질 수 있고 聽覺으로 들을 수 있는 有形의 痰飲과 頭目眩暈, 惡心嘔吐, 氣短, 心悸, 癲狂, 人事不省과 같은 症狀를 나타내지만 排出되어 나오거나, 實質的 形態를 볼수 없는 無形의 痰飲으로 區分하여 痰飲이 여러 精神症狀에도 폭넓게 病因으로 作用함을 說明하였다.

痰飲의 發生原因은 주로 外感六淫, 飲食所傷, 勞倦傷 및 七情所傷이 있다¹⁷⁾. 張 등^{15,16)}은 “飲水多或食少飲多”라하여 水分의 過多攝取를, 朱 등^{6,8,18)}은 脾土가 虧하여 飲水를 轉化하지 못하고 停滯되어 痰이 된다고 하여 飲食所傷이 痰의 原因이 된다고 하였고, 劉²⁰⁾의 ‘感風邪’, 張¹⁷⁾의 ‘隆暑, 津液焦固’, 陳¹⁶⁾의 ‘傷風咳嗽’, 徐²¹⁾의 ‘外感風寒暑所侵’ 등은 外感으로 痰이 發生함을 說明하고있으며, 張¹⁷⁾의 ‘困乏而得之’, 徐²¹⁾의 ‘飲食勞倦’은 勞倦傷에 屬한다. 그리고, 黃¹⁾은 精神的인 stressor가 作用하면 自律神經系에 影響을 주어 氣血의 循行에 異常을 가져오게 되므로 新陳代謝機能이 遲滯되어 體內에 非生理的인 痰涎이 滯留된다고 하였으며, 柳²²⁾는 “思慮의 不解와 曲意가 難伸하면 肝과 脾가 鬱하므로 脾가 健全치 못하여 鬱이 生痰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嚴⁷⁾은 “皆由驚動 臟氣不平 鬱而生涎 閉塞諸經 故有是證”이라하여 心因으로 臟氣가 편안치 못하여 鬱하면 痰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李⁵⁾도 “驚恐優怒即火盛神不守舍 舍空痰塞”이라하여 驚恐優怒등 情緒의 不安靜이 原因이 되어 痰火가 생겨남을 말하였는데, 이는 七情所傷이 痰의 原因이 되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王¹⁹⁾은 肺의 氣를 主하고 通調水道하는 作用과 脾의 水濕을 運化하는 機能, 腎의 水液을 蒸化시키는 腎陽機能등을 들어 痰

飲의 形成은 肺, 脾, 腎, 三臟의 機能이 失調된 것에, 寒熱이나 火氣등의 原因으로 津液의 正常的인 散布와 運行에 影響을 주어 水濕이 停滯되고 聚合되어 形成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三焦의 水液과 氣를 總括하여 調節하는 機能을 잃으면 水液과 氣가 서로 結聚되어서 痰飲이 發生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痰飲病邪가 形成된 後의 病機에 대하여는 虞 등^{18,23)}은 津液이 停滯되어 痰飲이 形成되는 過程중에 熱의 薰蒸을 받는다 하였고, 徐²¹⁾는 火를 無形之痰이라 하여 痰과 熱이 相關關係가 있음을 말하였고, 崔⁴⁾는 病理特徵을 1)經脈氣血의 運行을 沮滯, 2)氣機의 升降出入을 沮滯, 3)水液代謝의 進行에 影響, 4)쉽게 神明을 蒙蔽 등의 네가지로 나누었는데, 神明을 蒙蔽한다는 것은 痰濁이 上優하면 清竅를 蒙蔽하여 頭昏目眩 精神不振하고, 痰迷心竅하거나 痰火優心하면 心神披蒙하여 神昏譫忘 癲, 狂, 癇등의 症狀이 일어난다고 說明하였다.

以上을 살펴보면 痰飲은 非生理的 體液의 總稱이며 疾病의 原因이 될 뿐만 아니라 疾病으로 因하여 派生될수 있다. 主된 發生原因은 外感六淫, 飲食傷, 勞倦傷, 七情所傷등이며, 이로 因하여 津液, 氣血이 鬱滯되어 熱의 薰蒸으로 痰濁이 되어 여러疾患의 病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精神症狀의 發病機轉이나 病理症候중 痰飲과 聯關된 見解들을 살펴보면 《證治要訣》에는 “癲狂由七情所鬱遂生痰涎迷塞心竅 不省人事 目睛不瞬 妄言叫罵 甚即逾垣上屋 裸體打人 當治痰寧心”이라하여 七情의 鬱結이 痰을 생기게 하여 心竅를 閉塞하여 人事不省 등 癲狂의 症狀들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朱⁶⁾는 “大率多因痰結於心胸間 治當鎮心神閉痰結”이라하여 癲狂은 대개 痰이 心胸間에 鬱結되어서 오는 것으로 治療에 있어서도 마땅히 心神

을 鎮靜시키고 痰結된 것을 풀어야 한다고 하여, 張⁸⁾의 癲病多因痰氣 凡氣有所逆 痰有所滯 皆能壅閉經絡 格塞心竅“라한 것과, 陳⁹⁾의 “癲癇之證 亦累歲經年而未愈 乃痰入於心竅之間而不能出” “多生於脾胃之虛寒 脾胃虛寒 所養水穀不變精而變痰 痰凝胸膈之間 不得化流於心而癲症生矣” 라한 것과 함께 痰이 病因이 되어 心胸間에 凝結하여 癲狂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痰의 病機에 있어서도 張⁸⁾은 氣가 逆行하고 痰이 한곳에 滯流하게 되면 능히 모든 經絡을 閉塞하게 된다고 하였고, 陳⁹⁾은 脾胃虛寒으로 因하여 생긴 痰이 胸膈之間에 凝結되어 發生한다고 하였다.

樓²⁴⁾는 “癲癇卽頭眩也 痰在膈間 卽眩暈不伏 痰溢膈上 卽眩甚伏倒於地而不知人名之曰癲癇”이라하여 痰이 넘쳐 膈上에 까지 오르게 되면 癲癇이 발한다 하였고, 龔²⁵⁾은 “或因七情之氣鬱結 或因六淫之邪所干 或因受大驚恐 神氣不舍 或自幼受驚感觸而成 皆是痰迷心竅如痴如愚”라하여 七情之氣의 鬱結, 大驚恐, 幼年기에 크게 놀라는등의 精神的 要因이 痰을 생기게 하고, 그 痰이 心竅를 侵犯하므로 癲疾이 온다고 하였다.

張²⁶⁾은 “腎傷卽志不足 故神躁鬱火逆上 攻動其痰而厥也”라하여 癲癇의 原因을 說明하면서 鬱火가 上逆하면서 痰을 動하여 發生한다고 하였으나 그 根本은 腎虛에서 시작된다고 하였고, 孫²⁷⁾은 “痰熱相感而動風”이라하여 痰과 熱이 相感하여 風을 動한다고 하였으며, 虞 등^{5,24)}은 ‘痰火’라하여 痰의 實·熱의 特性을 表現하였다.

劉²²⁾는 “癲狂의 發病原因은 七情을 傷한 것이 가장 많다. 病理의 機轉은 痰濁이 많기 때문이며 癲病은 痰氣의 鬱結에 많이 屬하고 狂病은 痰火에 屬하는 것이 많다.” “癇의 病理機轉은 肝, 脾, 腎의 三經과 연관이 있다. 脾胃의 虛로 인한 痰涎의 結

合에 杞憂때문에 情志가 失調되어 飲食이 失節되고 勞心이 累積되어 肝風의 依痰으로 氣가 上逆하여 空竅가 閉塞되어 發作하게 된다.”고하여 痰이 癇疾發作을 일으키는 機轉을 說明하였다.

黃¹⁾은 “癲癇 病因의 중요한 要因이 痰이므로 飲食物과의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즉 酒類 清涼飲料水, 果實, 肥甘之物 등의 過乘攝取는 體內에 痰飲을 造成해주는 原因이 될수 있으므로 평소의 飲食에 대한 嗜好가 本病發生에 有力한 誘因이 될수 있다”고하여 癲癇과 癲癇의 原因이 되는 痰飲의 發生素因과의 聯關性을 말하였다.

李⁵⁾가 “驚悸者 心虛而痰鬱” “怔忡者 心虛而停水”라 한 것과 張¹⁵⁾이 “水停心下 甚者卽悸” “心下有痰飲 胸脇支滿眩”이라 한 것은 水飲과 痰이 心悸, 眩의 原因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朱⁶⁾도 “頭眩 依痰氣虛并火 … 無痰卽無作眩 痰因火動”으로 痰이 頭眩의 原因이 됨을 說明하였다.

陳⁹⁾은 “呆病實亦 胸腹之中無非痰氣 故呆無奇法 治痰卽治呆也”이라 하였고, 錢²⁸⁾은 “呆病治之法 開其鬱痰 水其痰 健脾胃以通其氣卽 心地光明而呆景盡散矣”라 하여 呆病이란 實은 胸腹에 痰이 停滯되어 오는 것으로 治呆法도 다름아닌 治痰法임을 나타내고 있다. 王¹⁹⁾은 “痰迷心竅는 흔히 七情에 損傷되어 惹起되니 예컨대 抑鬱 爆怒 등 또는 濕한 濁氣의 邪氣에 感觸을 받거나 氣의 機能이 障礙 되거나 氣가 鬱結되어 痰이 凝集하면 心竅를 막게 되어 발생한다. 痰火優心은 흔히 氣가 鬱滯되어 熱이 火로 變하여 津液을 바짝 줄여 痰이되고 痰火가 心身을 어지럽혀 發生하거나 또는 外感熱病에 邪熱이 痰을 끼고 心包안으로 들어가 惹起되니, 히스테리, 精神分裂症, 癲癇등에서 자주 나타난다.”고하여 痰으로 因하여 惹起되는 精神症狀의 機轉을 說明하였으며, 痰迷心竅와 痰火優心の 症狀를 각각 意識不清 或自言

白語 如呆如痴 重者可突發昏倒 喉中痰鳴 作響과 心煩, 不眠, 易驚, 口苦, 重即語無論次 泣笑無常 狂躁, 打人罵人이라 하였다. 또心悸怔忡, 胸悶或刺痛하고 甚한 경우는 갑자기 極烈한 痛症과 四肢厥冷하고 精神昏迷하여지기도 하는 俠心症이나 心筋梗塞등에 대하여는 ‘心血於阻症’이라 하여 “心氣 또는 心陽이 虧損되어 虛弱해진 뒤에 發生되니, 陽氣가 虧損되어 血脈을 따뜻하게 돌리는 힘이없기 때문에 血行이 원활하지 못하여 瘀血이 心脈을 가로막아 惹起되며 왕왕 勞倦內傷에 兼하여 寒氣에 感觸되거나 喜怒에 節도가 없거나 精神的인 損傷 또는 痰濁이 凝集하여서 誘發하기도 한다.”고 說明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를 整理하면 七情의 所傷은 六淫, 飲食傷, 勞倦傷등과 마찬가지로 痰飲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痰飲은 心竅를 迷塞하거나 心胸間에 鬱結또는 停滯되어 여러 精神疾患에 病因으로 作用할 수 있는데, 肝風에 依하거나 鬱滯로 生熱하거나 肝火 心火등으로 인하여 痰火로 化火 하는등 二次的으로 變成되어 作用할 수 있다.

精神活動의 過勞나 急激한 情緒의 變化가 體內的 痰飲에 作用하여 症狀이 發現하는 경우에는 平소의 健康狀態가 중요하므로 體內에 痰飲을 造成 할수있는 飲食에 대한 嗜好나, 習慣 등 痰飲을 形成하는 條件들에 대한 適切한 養生法이 要求된다고 思慮된다.

IV. 結 論

精神症狀과 關聯된 痰飲에 關하여 文獻的 考察을 試圖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痰飲은 外感六飲, 飲食傷, 勞倦傷 및 七情所傷에 의하여 發生할 수 있다.

2. Stress나 情緒의 不安靜 또는 急激한 感情의 變化 등 七情所傷은 臟腑의 氣機를 阻滯시켜 痰飲을 發生시킬 수 있다.

3. 精神疾患의 病因이 되는 痰飲은 痰, 飲, 水, 水濕, 水飲, 痰飲, 痰火, 痰濁, 痰熱, 痰邪 등으로 痰飲의 形態나 性質에 따라 多樣하게 表現 되었다.

4. 痰飲에 의하여 誘發될 수있는 精神疾患은 癲, 狂, 癩, 呆, 心風, 鬱, 厥, 心悸怔忡 등 多樣하다.

5. 痰飲이 精神疾患을 일으키는 機轉은 心胸間에 鬱滯되거나, 心竅를 迷塞하거나, 經絡을 閉塞시켜 症狀을 惹起시킨다

參 考 文 獻

1. 黃義完 編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1987, p.160,518.
2. 漢方醫學大辭典編輯部 : 漢方醫學大辭典, 서울, 翰成社. pp.324,325.
3. 金聖勳 : 東醫病理學, 서울, 翰林院. 1994, p.110.
4. 催昇勳 編 :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3, pp.70-740.
5. 李挺 : 醫學入門, 서울, 大成出版社, 1984, 2:162-186.
6. 朱震亨 : 丹溪心法, 台北, 五洲出版社, 1981, 9:1-19, 10:1-10.
7. 嚴用和 : 濟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p.78-80.
8. 張介賓 : 景岳全書, 서울, 杏林書院, 1975, 31:411-417.
9. 陳士澤 : 石室秘錄, 台北, 國風出版社, 1974, pp.159-160.
10. 張仁圭 : 痰飲의 原因, 症狀, 治法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韓醫學學會紙, 1986, pp.160-169.

11. 尹太英: 飲과胸痛의 文獻的比較考察, 大韓醫學學會紙, 1993, pp.310-319.
12. 이주희 : 痰飲에 관한 文獻的 考察, 대한의학 학회지, 1993, 4.
13. 임종원 : 痰飲의 病因 病態및 治法에 관한 文獻的 考察, 대한의학 학회지, 1989, 4.
14. 王琦 編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補社, 1983, p.432.
15. 張機 : 金匱要略, 台北, 文光圖書公私,
16. 巢元方 : 巢氏諸病源候論, 台北, 昭火出版社, 12:5-10. 1959, pp.181-203.
17. 張從正 : 儒門事親, 台北, 旋風出版社, 1978, 4:17, 6:16, 7:9.
18. 許俊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269.
19. 王志善 : 醫學基礎理論問答, 서울, 大成文化社, 1994, pp.257-263, 476-480.
20. 劉完素 : 劉河間三十六書, 서울, 成補社, 1976, p.199,415.
21. 徐靈胎 : 徐靈胎醫書32種, 서울, 慶熙大韓醫學科, 1974, pp.14-19,
22. 柳熙英 : 東醫精神科學, 서울, 南山堂, 1992, pp.42-48.
23. 虞天民 :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pp.199-200.
24. 樓全善 : 醫學綱目, 台南, 北一出版社, 1973, 21:16-30.
25. 龔信 : 古今醫鑑, 서울, 醫學社, 1980.
26. 張三錫 ; 醫學準繩六要, 서울, 成輔社, 1980.
27. 孫思邈 : 千金方, 台北, 自由出版社, 1976, 18:331.
28. 錢鏡湖 : 辯證奇聞, 台北, 甘地出版社, 1980, pp.233-235.